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0호 [루게 제24603호] 주제 103 (2014)년 7월 9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0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0돐 중앙추모대회가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수령영생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우리 조국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가장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과 혁명,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결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시대에 우리 조국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일떠섰으며 민족만대의 존엄과 통성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의 영원불멸할 진리성이 힘있게 파시된 지난 20년은 조선로동당

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승승장구하며 성스러운 계승의 년대기, 태양조선의 대변영기를 펼쳐온 력사의 나날이었다.

추모대회장인 평양체육관에는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자주시대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 대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굽어있었다.

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추석단체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추모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 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연교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김영남 동지, 박봉주 동지, 황병서 동지, 리영길 동지, 현영철 동지, 리을설 동지, 황순희 동지, 김철만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최룡해 동지, 박도춘 동지, 양형섭 동지, 최영림 동지, 강석주 동지, 리용무 동지, 김원홍 동지, 최부일 동지, 김평해 동지, 박범기 동지, 오수용 동지, 로두철 동지, 조연준 동지, 현철해 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일군들,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공로있는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영웅, 점건자,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권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가 추모사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추모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 불멸할 것이다

중앙추모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의 주모사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었습니다.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민족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살며 투쟁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지금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가고 수령영생의 송가는 세기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과 혁명,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영웅적 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와 업적을 뜨거울 걱정속에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으며 생애의 마지막 시가지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순직하신 위인은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비범한 예지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현대력사를 자주의 궤도에 올려 세우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혁명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으며 생애의 마지막 시가지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순직하신 위인은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비범한 예지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위대한 수령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아주시고 총지한 전우와 함께 적으신 한상의 사전을 가장 소중한 재보로 남기신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곧 동지들의 력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아주시고 총지한 전우와 함께 적으신 한상의 사전을 가장 소중한 재보로 남기신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곧 동지들의 력사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 주신 사회주의 강국이 펼쳐지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마지막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민과 인민의 지대로는 어버이이셨습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역,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혁명의 대전당, 주체의 최고성지는 송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양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공,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땅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내 조국을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어 후손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

해주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흠모의 정이 어린 존장보존실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고자할 충정의 맹세를 가다듬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는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고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끊없이 끊이쳤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역,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띄

여져있었다. 군중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역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에도 절세위인들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찾아오는 각계층 군중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지방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는 각계층 인민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문화협회와 단파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과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한 오세안지역최고위원회대표단 단장인 페르드 페르손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이 7일 해당 부문 일군에

게 전달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단파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위원장이 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들, 해외연고자가족들,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재조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높이 모시고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

리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 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로씨야의 정당들과 일본의 인사, 국제민주여성 련맹과 스위스조선위원회,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연방공산당, 공산당연맹-썬련공산당, 시공동맹로 된 꽃바구니를, 로씨야연방 및 통일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7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또한 이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일조우호추진도교의원련락회 공동대표 야시자와 가자야가 보내 여은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국제민주여성련맹과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또한 이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국제민주여성련맹 위원장이 보내여은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8일 주조 나이제리야연방공화국 대사관,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회외 국제련맹대표단과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이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으셨으며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제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0돐 추모대회 및 추모회

## 각 도, 시(구역), 군들과 련합기업소들에서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0돐 추모대회 및 추모회가 28일 각 도, 시(구역), 군들과 련합기업소들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추모대회 및 추모회들에서는 지방당, 정권기관, 사회단체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사회주의 조건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추모대회 및 추모회들에서는 도, 시(구역), 군,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추모사를 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가장 절충한 인민인, 절세의 위인의 한생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인류사주위업수행에서 국적인 전범이 일어난 20세기의 갈파마다에는 가장 준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철리를 밝히시며 혁명행도의 전기간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기를 열어오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식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민족제주의 은인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안시고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어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셨다고 말하였다.

조국의 최북단에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세월의 눈비를 닦았으며 현지지도의 수천만리길을 이어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원신과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 혁명과 자주사상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를 마련하신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불멸의 공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지도로 굳게 뭉친 불멸의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어머니당, 그 어떤 풍파도 뚫고나가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적리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

임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 되게 하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받들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나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대량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며 애모하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연설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져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은 천세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으로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희세의 위인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투쟁해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긍지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어 천만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력사의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겪었어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흠모의 정이 어린 존장보존실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고자할 충정의 맹세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로씨야의 정당들과 일본의 인사, 국제민주여성련맹과 스위스조선위원회,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로씨야연방공산당, 공산당연맹-썬련공산당, 시공동맹로 된 꽃바구니를, 로씨야연방 및 통일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7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또한 이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일조우호추진도교의원련락회 공동대표 야시자와 가자야가 보내 여은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국제민주여성련맹과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그들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 전병호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인민군 특근대장이며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동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주제 103(2014)년 7월 7일 19시에 88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전병호동지는 당과 수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로혁명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멸시속에서 살아오던 전병호동지는 해방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의 한생을 빛내여왔다.

전병호동지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경위대에서 복무하면서 안팎의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전병호동지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한생을 국방공업부문에 사업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제 103(2014)년 7월 7일



전병호동지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총지한 선군혁명전우로서 오랜 기간 국방공업부문의 중요직책을 책임하면서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위수단을 갖춘 최정예혁명군으로,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는 데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전병호동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군수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전병호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정신, 혁명적원칙성과 소박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선군혁명의 생명선인 군수공업전선에서 오랜 기간 당의 위업을 총지하게 받들어온 전병호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전병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정신, 혁명적원칙성과 소박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선군혁명의 생명선인 군수공업전선에서 오랜 기간 당의 위업을 총지하게 받들어온 전병호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전병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1. 고 전병호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2. 고 전병호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김정은

위원	김영남	김만성	림철성	윤병권
	박봉주	한광복	조경철	안지용
	황병서	오일정	윤동현	주동철
	리영길	안정수	강표영	최재복
	현영철	김정임	김형룡	김수길
	김기남	김중협	김명식	태종수
	최태복	한광상	리병철	박태성
	최통해	홍인범	김춘삼	리만건
	박도춘	김경옥	김영철	전승훈
	양형섭	리재일	오금철	박영호
	강석주	최 휘	박정천	박태덕
	리용무	전일춘	김정판	김춘섭
	오구렬	정명학	노광철	박정남
	김원홍	김희택	동영일	리상원
	김양건	강관일	리창한	강양모
	김평해	홍영철	리용주	림경만
	파범기	홍승무	리규만	조춘룡
	오수용	장창하	전경학	주규창
	최부일	림춘성	김택구	최춘식
	로두철	변인선	리문국	리제선
	조연준	서홍찬	김수학	유진
	리일환	박영식	방관복	리성학

# 고 전병호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고 전병호동지의 영구는 평양시 보통강구 들은 7월 9일 10시부터 19시까지 맞이하여 서장회관에 안치되어있다.

고인과 영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객 7월 10일 8시에 고인의 영구를 발인한다.

# 전 병 호 동 지 의 락 력

조선인민군 특근대장이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동지는 주제 15(1926)년 3월 20일 자강도 전천군 빈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전병호동지는 조국이 해방된 후 당과 수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나 국방공업부문에 한생을 다 바치셨다.

동지는 주제 34(1945)년 10월부터 경위대에서 복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장으로 옹유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동지는 주제 41(1952)년 9월부터 주제 59(1970)년 7월까지 군수공업공정원, 부장, 기사장으로 사업하면서 전진군수생산을 보장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였다.

동지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주제 59(1970)년 8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의 중임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공헌하였다.

동지는 주제 99(2010)년 6월부터 주제 101(2012)년 3월까지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사업하면서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주제 101(2012)년 5월부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으로 일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다.

동지는 주제 99(2010)년 6월부터 주제 101(2012)년 3월까지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사업하면서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주제 101(2012)년 5월부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으로 일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다.

동지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주제 59(1970)년 8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의 중임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공헌하였다.

동지는 주제 99(2010)년 6월부터 주제 101(2012)년 3월까지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사업하면서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주제 101(2012)년 5월부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으로 일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다.

동지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주제 59(1970)년 8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의 중임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공헌하였다.

동지는 주제 99(2010)년 6월부터 주제 101(2012)년 3월까지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사업하면서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주제 101(2012)년 5월부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으로 일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다.

#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서흥군, 장풍군, 황주군에 모시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서흥군을 찾으신이 군이 나아가길 원하되 밝혀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장풍읍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관개공사를 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 빨리 끌어올릴수 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농업생산과 지방공업발전에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로고는 긴등벌을 비롯한 황주군의 여러곳에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안변군과 금강군, 은률광산에는 군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러

주시고 로동계급을 걸출할수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어려웠다. 해당 군들과 광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만대에도 길이 빛내여갈 불같은 마음안고 김정은동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백두산에 오르시어》가 모시였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 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공연이 8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류자주위업전선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도의 정에 휩싸여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무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 영웅, 절절자,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 주요 여러

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대표, 무관부부들, 외국순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리론과 《성향당》식혁명연극창조리론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여 완성한 기념비적명작이다. 연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대규모적인 《신공세》작전으로 전선동부에 조성된 엄청난 사태를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법, 독창적인 명군술로 타개해나간 불멸의 전승업적과 그이의 고매한 인민적품목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화

의 불비속을 헤치시고 최전선에까지 나오시어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기도를 파탄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용대한 작전적구상을 무리히 하신다. 또한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고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신다. 연극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계급주의 연합세력을 타승하고 빛나는 전승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이시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라는것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그들의 열골마다에는 당과 수령을 따라 반제반미대결전에

서 승리의 새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1950년대의 승리자들처럼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승사를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어려웠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일반화하고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진실한 생활적화폭속에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전승업적을 영원으로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따라 필승의 신념이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 그날의 당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49년전인 주제 54 (1965)년 3월 26일 몸소 금속공업성 흑색금속공업관리국 당분세포(당시)총회를 지도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의 말단기총조직인 당세포의 강화발전에 기울으신 수령님의 로고와 업적을 참으로 눈시울 뜨겁게 더듬어보게 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김일성동지의 존엄과 결부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당분세포의

평범한 한 당원이 되시어 당조직관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신 사실을 비롯하여 력사의 그 날의 감동깊은 사연들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을것인가. 한해에 여러차례나 당분세포 총회에 참석하시어 당분세포가 나아가길 길을 걸출할수 환히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평도사적은 우리 당원들의 심장을 무한한 격정으로 높뛰게 하고있다. 영광의 그 당회의들을 계기로 당분세포 당원들의 정치적자각은 비상히 높아지고 당분세포의 전투력은 배배해졌다. 당분세포가 목표로 내걸고 투쟁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랄만 그치지않다. 격동의 1970년대와 일심단결의 장엄한 화폭이 펼쳐진 1980년대, 류에없이 엄혹했던 1990년대...

그 어느 년대나 기총당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당과 수령의 평도를 총지하게 받들고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었던 단것은 추억깊은 그날의 당회의들이 커다란 원동력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을 받아안았을 때 온몸을 휩싸던 회열을 지금도 누를길 없다. 우리 당세포의 모든 당원들은 수십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당분세포총회에 참가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당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체험하는듯싶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가 펼쳐진 오늘 우리 당세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

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있다. 회의에서 토의되는 안건은 다르고 그대의 당원들은 여기 없어도 우리는 영광의 그 당회의를 안고있다. 력사의 그날에 당원들에게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분발하여 일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당세포사업에 드림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 그 일념을 안고 우리는 얼마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당분세포총회를 지도해주시신 추억깊은 사진문헌이 모시져있는 사무실에서 당세포총회를 가지였다. 그날의 당원들의 넋을 안고 당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날의 당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금속공업성 당세포비서 윤영식





